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살펴 본 북한경제 실태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연구소 이사

북한경제 실상에 접근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북한경제에 관한 뉴스는 대부분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한 후유증과 식량난이다.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북한의 현재 식량생산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견

해와 북한 식량난은 거의 최악이며 많은 주민들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식량난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면 왜 식량부족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는지, 왜 탈북민이 계속 발생하는지, 왜 식량이 군사용으로 비축되는지 등의 의문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최악이라면, 어떻게 식량이 시장에서 거래되며,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남는다. 이에 대한 진실게임은 북한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수수께끼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북한에 대한 정보와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북한경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북한경제의 현실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첫째는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면을 잘 관찰하여 가설을 세우고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2만 여명의 탈북민을 통해 북한경제의 실상을 추론해 보는 작업이다. 본 글에서는 탈북민 100여명과의 인터뷰내용을 토대로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 2년간 탈북민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모든 탈북민이 탈북 동기를 경제적 빈곤의 탈출이라고 진술했던 점이었다. 과거처럼 자유대한민국으로의 탈출이나 북한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으로 한국행을 택한 사람은 한명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먼저 탈북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탈북을 감행한 소수의 경우도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떠나야만 했던 동기가 같이 작용했다. 1990년대 초반과 다른 점은 북한정부가 배급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법과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용적으로 변한 사실이다. 사법기관의 기강해이로 복송된 탈북민들의 재탈북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탈북 동기는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나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소망 등,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대다수 탈북민들은 북한의 경제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나름대로의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의 친척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탈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탈북민은 자유를 찾아 귀순한 ‘용사’의 이미지보다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불법이민자로서의 성격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탈북의 정치적 동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참담한 협동농장 실태와 식량배급의 악화

2011년 여름에 탈북한 함경북도 온성의 협동농장에서 근무했던 20대 농장원은 1년 노동의 대가로 식량 30kg을 분배받았다고 했다. 분배량은 고난의 행군 이후 어려웠던 시절에도 월 20kg정도의 식량 배급이 유지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식량 30kg은 1개월 정도의 분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소토지를 비롯한 부업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다. 이 청년의 경우 낮에는 협동농장 일을 대충하면서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개인 텃밭 경작에 소요했고, 밤이 되면 협동농장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산업부분에서의 식량사정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건국 후 한 번도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비효율적인 주체농법과 국영농장의 운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은 벌써 20년 가까이 세계 뉴스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고 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거의 매년 일정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배급은 극히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1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대략 정곡기준 475만 톤으로 추정된

다. 비료와 영농물자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인한 북한의 식량난은 2012년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다.

북한에서 대부분의 식량배급이 중단되었지만,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서는 배급의 유무나 양에 큰 차이가 있다. ‘우선배급대상’으로 불리는 일부 평양시민, 중앙당 간부, 군대, 보위부, 안전부 등의 간부들은 좋은 배급을 받고 있다. 우량탄광 노동자나 군수산업 근로자들의 배급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바뀐 듯하다. 2011년 봄에 탈북한 삭주의 군수공장 근로자 출신 탈북민은 2010년 경우 본인만 1달에 15kg의 옥수수를 배급받았고 가족들에 대한 배급은 중단되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2011년 가을에 탈북한 강계출신 군수공장 탈북민의 증언은 식량배급이 더 악화되어, 일일 배급량이 산채 염장과 통강냉이 3~5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군수공장에 대한 식량지원도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았다. 다른 군수공장 출신 탈북민은 본인에게만 생존 불가능한 소량의 식량배급이 제공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일반 탈북민들의 경우 김정일 생일에도 식량배급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노동자들은 국가기관이나 기업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를 경작하기도 한다.

탈북민 중에서 평양출신의 비율은 높지 않다. 평양은 배급이 유지되고 있지만 근래 들어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일반 평양시민들의 경우 2010년 가을부터 식량배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중앙당 중간간부의 경우 1인당 월 10kg의 식량이 제공되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줄었고 가족들과 합산하여 나오는 배급의 경우 조금 더 줄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대부분은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하면서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간다. 자금원은 대부분 소속 기업소의 지원이나 시장 활동에 의한 수입 등이다.

많은 탈북민의 증언 중 흥미 있는 사실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

한의 음식문화가 다양해졌다는 사실이다. 1990년 이전 평양시 사회급 양망에서 운영하는 이동판매 음식은 주로 옥수수 빵이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경제적 동기에 의한 개인의 이동이 증가하였고, 식품의 가내생산이 원가가 저렴하고 이윤은 높아 식품관련 자영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 ‘대기여관’과 같은 개인 숙박업이 증가한 것도 유사한 사례이다. 역설적이지만 고난의 행군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면서 더욱 다양한 음식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식품부문에 부분적으로 시장의 요소가 자생적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기름튀기, 만두밥, 두부밥, 국밥, 젓갈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소에 근무하던 회령출신의 30대 후반 여성근로자는 거주하는 아파트 1층의 본인 창고를 개조해서 매점을 만들어 식료품을 판매하였다. 이 매점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상품은 두부초밥과 인조고기밥이고 담배와 당과류도 높은 수익을 올려준다고 했다. 이 여성이 기업소에서 수령한 5인 가족에 대한 배급은 매월 옥수수 22kg에 불과하여 부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영업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지속되었다. 반면 매 월요일은 여맹 등 여러 회의나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거나 강제 동원되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를 어길 시는 교화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아 월요일 영업은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개인이 자기 창고 등에서 장사하는 경우 보위부는 상관하지 않고 분재소나 순찰대 등은 트집을 잡아 비교적 적은 뇌물을 얻어 간다고 한다.

‘강성대국’ 구호에 냉소적

일반 탈북민들은 식량난을 겪으면서 체제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고, 결국 탈북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북한정권은 학습, 시사강연 등을 통해 북한이 2012년에는 강성대국을 달성할 것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만 처분해도 잘 살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대부분의 주

민들이 강연을 듣는 순간에는 기대를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냉소적으로 반응한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이 그토록 염원해 왔던 ‘강성대국으로의 진입’ 구호도 사라지고 있다. 주민들과 북한정권의 현실 인식의 차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계획경제의 몰락은 정치, 군사, 사회적인 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기존의 북한체제가 보여주었던 정치적 결속력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화폐개혁 이후 많은 북한주민들이 정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 중 20대와 30대의 불만이 가장 높으며, 생활수준이 급락하면서 나이든 사람들도 “국가가 자기의 도리도 못하고 주민을 속여 놓고 죽인다”라고 불만을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다.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도 국정경험이 전혀 없는 김정은이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국제관계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탈북민은 없었다. 2012년에 탈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에 대해 한국 사람들보다 더 모르고 있었으며, 북한의 친척들과 전화로 연락하는 탈북민들은 친척들이 김정은에 관련한 대화를 대부분 피하려 한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시장이 확산되면서 시장에서 부를 획득한 계층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돈주로 알려진 큰 손들은 정부의 이름을 빌려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시장의 규모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이동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국영철도는 전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잦아 일반 주민들은 보통 돈주와 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씨비차’를 이용한다. 씨비차는 특정 기관 등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뒤에 사람과 짐을 싣고 운영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는 일본의 중고버스를 구매하였으나, 요즘은 중국의 중고버스를 구매하여 도시와 도시 사이, 또는 도시 내의 버스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버스는 대부분 특정 권력기관의 명의를 빌려 운행하고 있다. 인민무력부 기동여단 운수와 소속의 ‘올림픽회사’와 인민보안부 소속 ‘116기동대’가 대표적인 운송사업체이다.

일반상품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상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국영상품은 질이나 선택의 폭, 서비스 차원에서 시장 상품들과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 국영상점을 통한 상품의 판매가 악화되면서 국가의 수입은 감소하게 되고, 정부의 재정도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역설적으로 국가재정의 악화로 인해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기능마저 시장이 떠안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시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 활동을 억제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대략 5월 중순부터 가을걷이 때까지 강제적으로 농촌봉사에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다. 동원의 주목적은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시장도 일반적으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만 운영된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장이 운영된다.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특수한 경우 하루 종일 시장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정부가 돼지꾸리기, 음식거리 만들기 등 다양한 과제를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장의 개장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과거에는 시장에서의 활동은 보조 경제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시장이 생활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모든 외부 소식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장세를 포함한 시장운영 수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원들이나 보안원들의 뇌물 수수와 같은 인센티브를 허용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시장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을 감시하고 부를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부 돈주의 경우 직접 노동자도 고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의 탄광운영이다. 평남 순천 연합탄광기업소의 경우 양질의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개인이 뇌물을 주고 탄을 채굴하여 장마당에 판매하는 소위 인민갱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하자원 수요가 높아지면서 돈주들이 직접 탄부를 20~30

명 정도 고용하여 탄을 채굴하여 전량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돈주들은 사회안전부, 인민무력부, 국방대학, 희천발전소 등 주요 기관의 명의를 빌려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권력기관들은 간판을 빌려준 대가로 1년에 석탄을 일정량씩 받기로 계약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돈주들은 소위 ‘기지’를 건설하여 불하를 받고 있다. 보안부 기지, 국방대학 기지 등으로 불리는 업체들은 기지장의 지도하에 생산하고 있다. 큰 규모 기지의 경우 50여명 정도 채용하기도 한다. 이들의 생산성은 국영탄광보다 훨씬 높고 대부분 간부와 줄이 있는 사람들이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채굴된 탄은 외화벌이 회사를 통해 전량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 결국 국가가 포기한 기간산업을 개인이 정상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돈주와 달리 일반 주민들은 소규모 가내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빵이나 두부같은 식품생산과 간단한 생필품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관계기관이 급습하여 재산을 압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를 두고 “국가에서 새끼돼지가 살찔 때까지 기다린다”고 표현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규모에 따라 뇌물액수가 결정되지만, 친인척 중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금의 액수나 처벌도 크게 감소한다. 빵, 옷, 두부 등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 형태는 큰 관여를 하지 않지만 소액을 권력기관에 뇌물로 제공해야만 한다. 결국 북한에서 상행위의 성공 여부는 뇌물 액수와 비례하고 있다.

북한의 미래는?

과거 탈북민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공화국이 못산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현재의 탈북민들은 경제난, 마약의 확산, 교육제도의 붕괴 등과 같은 사례를 들며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후 개혁·개방으로 나간다면 북한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는 소수의 견해도 있었지만, 화폐개혁 이후 그런 희망도 사라졌다. 만성적인 식량난과 탈북

민의 행렬이 북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북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난은 많지만 국가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었다. 탈북민의 의식 속에 그들이 국가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일종의 국가지상주의가 나타나는 것 같았다. 탈북민들은 남북의 정치와 사상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애국심이 한국 주도의 무력통일을 반대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였다. 북한 주도의 통일도 국력이나 미국 때문에 불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의외로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의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였다. 반면 북한이 중국에 식량과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은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었다.

아직도 북한의 지도부는 권력유지를 위해서 주체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독재는 지도자의 교시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인민의 '개인적 주체'는 박탈되어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되게 되었다. 이제 북한에서는 다시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과 계획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장마당에서의 활동은 보조 경제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 시장은 모든 외부소식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집착은 시장과의 타협을 불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획경제의 몰락과 체제의 붕괴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이미 추동력을 상실하여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시장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되고 있고 당 간부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 요인으로 자리매김 하였기 때문이다. **北韓**